

독일 아동문학 『립펠의 꿈 이야기』에 나타난 동양 이미지

명 정 (경기대)

I. 들어가는 말

‘동양 Orient’¹⁾은 ‘떠오르는 태양, 아침 지역, 동쪽’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oriens’에서 기원된 표현으로, 상위개념으로는 주로 이슬람 문화권을 나타낸다. 그러나 사실 이 개념은 유럽의 관점에서 발전된 표상화된 공간개념이다. 이러한 표상관념을 바탕으로 동양은 기독교적인 논박의 표적이 되었고, 동화적이며 이국적인 것과 에로틱한 것의 총체로 인지되었으며,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동양 이미지 Orientbild’는 서구의 사고방식으로 채색된 채 일반화되고 공식화되어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다. 14세기 이후 유럽과 동양이 역사적인 관계를 맺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 동양의 영향이 서양을 정신적이고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대립 관계를 통해 동양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되어왔다.

이와 관련해서 독문학 분야에서는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동양 Orient’ 개념이 대체로 문학적이고 문화적인 수용 측면에서 문제시되었다. 선입견이 가중된 동양인지에 맞서 서구의 ‘동양 이미지’와 ‘동양 클리셰 Orientklischee’를

1) 우리말로 ‘동양’이나 ‘오리엔트’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아시아의 동부 및 남부 지방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0324900>(검색일: 2014. 10. 10.) 참조). 그 활용에 있어서도 주로 동아시아 지방을 가리키는 의미가 지배적이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어 원어 ‘Orient’의 사전적 의미는 ‘동양, 중근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허형근: 옛센스 독한사전, 민중서림 2007, 1603면 참조). 이에 본 논문에서 ‘동양’이라 함은 그 본래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이슬람문화권의)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방을 그 대상으로 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사실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요청이 일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식민지 시대의 종결과 동양의 나라들에서 새로이 발생한 자의식을 꼽을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에서 유럽으로의 이민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올바른 자아상과 타자상 정립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동양의 경우 그 이미지가 언제나 -동화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 이국적인 매혹이나 두려움과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적대감 사이를 배회하는데, 독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들로 구성된 타자들이 대규모 집단을 이루면서 지난 십 수 년간 후자가 지배적이었다.²⁾

특히 종교와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계속하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의 동양 출신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들의 생활 방식은 독일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자유와 생활의 안정에 위협을 느끼게 했다.³⁾ 더욱이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동양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국성 Exotik'과 '동화성 Märchenhaftigkeit'에 '이슬람포비아 Islamphobia'라는 혐오와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고, 동양에 대한 적대 이미지를 더욱 고착시켰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이민 사회에서 이민자들-특히 이슬람 문화권의 동양 출신-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끌어내는 것은 동양에 대한 낡은 클리셰와 선입견이 인식되는 한 불가능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동양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성장기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
- 2) 독일 사람들은 제한된 사회 시스템 내에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밀려들면서 이들에 대해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다. 사회적인 긴장상태가 증폭되고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감정이 극대화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에 대한 기존사회의 반응은 거부와 '외국인 적대 Fremd(en)feindlichkeit'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Vgl. Manfred Bornwasser: Fremdfeindlichkeit: Ursachen und Veränderungsmöglichkeiten, in: Alexander Thomas (Hg.): Psychologie und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 Problemanalyse und Problemlösungen, Göttingen 1993, S. 95-115, hier: S. 98.
- 3) 독일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이민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터키인들의 경우 서양의 문화관습을 이해하거나 그것에 적응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들 고유의 종교와 관습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그들은 독일인들에게 가장 낮설게 여겨지는 이민자들로 치부되고 있다. Vgl. Y. Broyles-González: Türkische Frau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Macht der Repräsentation, in: Zeitschrift für Türkeistudien, 1, 1990, S. 107-134.

에게도 암암리에 영향을 끼쳐 고정관념화 되어 어린이들의 일상에서도 타문화권 출신 어린이에 대한 조롱과 멸시와 차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⁴⁾ 개인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인 조직에 침투하는 ‘고정관념 Stereotype’이나 ‘클리셰’가 여기서 문제제되는 것은, 그 전형이 대체로 ‘잘못된 표상’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단 고착된 관념은 인류학자인 헤르만 바우징어 Hermann Bausinger의 고찰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세대를 넘어 유지되며, 어떤 한 그룹을 부정적으로 규정된 특정 그룹과 갈라놓는 경계 짓기 기능을 한다.⁵⁾ 이에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어린 청소년 독자들에게 왜곡된 동양 이미지가 전달되고 표상화되어 고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올바른 동양 이미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문화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파울 마르 Paul Maar의 작품 『립펠의 꿈 이야기 Lippels Traum』를 분석한다. 우선 동양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동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표상화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동양적인 이야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천일야화 Tausendundeine Nacht』에서 형식을 차용해 낭만적인 동양의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측면과 이를 통해 동양권 출신 사람들과 그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나 차별의식을 허물고 동양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적인 이해를 지향하는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동양 개념: 표상화된 동양 이미지

역사적으로 ‘동양’이라는 개념은 각 시기마다 서로 다르게 파악되는데, 독

4) Vgl. Helene Schär: Dritte Welt als Thema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in: Günter Lange (Hg.): Taschenbuch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Bd. 2, Baltmannsweiler 2000, S. 784.

5) Vgl. Hermann Bausinger: Stereotypie und Wirklichkeit, in: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Bd. 14, 1988, S. 160 f.

일문학 담론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그리스어인 ‘anatolé’(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Land der aufgehenden Sonne)를 ‘아침의 나라 Morgenland’로 번역한 이후로 이 용어가 차용된다.⁶⁾ 그러나 동양에 대한 어원적, 지리학적 개념에 서양 중심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부가되면서 동양과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가 유럽에 의해 조건 지어지고 표상된다.

동양이라는 개념은 동양과 서양(유럽) 사이의 실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관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양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는 수세기 전부터 실제와 다른 모순적인 클리셰 내지는 선입견과 결부되는데, 여기에 오리엔탈리즘이 기여한다. 사이드는 “동양이 갖는 세계의 인지가능성과 자기 확인(정체성)은 동양인 자신의 노력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양이 동양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함에 따른 인지작업의 기술적 조작을 위하여 채용한 복합적 절차의 총체에 의하여 초래된 것”⁷⁾이라고 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을 문화적인 힘의 행사의 한 형태로서 설명하고, 분석하며, 고찰하고 있다. 한 마디로 오리엔탈리즘 속에 나타나는 동양은 서양의 학문, 서양인의 의식, 나아가 근대에 와서 서양의 제국지배라는 영역 속에 동양을 집어넣는 일련의 총체적인 힘의 조합에 의해 틀어 잡힌 ‘표상의 체계’이다. 이러한 표상이 갖는 관념을 서양인들은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고수하는 데 이용했고, 동양인에게 그 관념대로의 이미지가 부여된 것이다.

동양 이미지는 어쨌거나 시대정신, 사회·문화적인 상황 그리고 그 때마다의 작가나 편집자의 수용 태도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18세기와 19세기가 진행되는 동안 동양은 동화적인 것, 이국적인 것, 에로틱한 것의 총괄개념으로 단순화해서 표상되었다.⁸⁾ 18세기 초 유럽에서는 갈랑의 『천일야화』 번역

6) Vgl. Ingeborg Solbrig: Orient-Rezeption, in: Ulfert Ricklefs (Hg.): Das Fischer Lexikon. Literatur Band 3, Frankfurt a. M. 1996, S. 1450.

7)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교보문고 1991, 83면 이하 참조

8) 괴테, 위고, 라마르틴느, 프리드리히 쉐레겔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사람들(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동양은 이국적인 것, 여성적인 것, 그리고 신비스러운 것, 심오한 것 그리고 근원적인 것의 동의어였다. Vgl. Edward W. Said: Kultur, Identität und Geschichte, in: Gerhart Schröder (Hg.): Kulturtheorien der Gegenwart, Frankfurt a. M. 2001, S. 39 - 58, hier: S. 43.

을 통해 “동화적인 동양 märchenhafter Orient”⁹⁾이 발견된다. 그러나 『천일야화』의 경우 유럽의 동화, 전설 그리고 성담들에 수많은 (문학적) 전형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¹⁰⁾ 그 수용과정에서 번역자들의 상상과 이미지에 따라 재구성되어 소개되면서 인종차별주의적인 ‘동양 클리셰’와 ‘적대 이미지 Feindbild’ 발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영국의 리처드 버턴 Richard Burton(1821-1890)의 번역과 주해는 유럽의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이미지 표상에 기여했다는 비난을 받는다.¹¹⁾ 더욱이 19세기 제국주의와 함께 유럽중심주의적인 태도에서 동양은 불변의 후진성이 강조된 이미지로 표상화된다. 이러한 표상관념은 식민주의의 패권을 쥔 유럽 강대국의 요구를 합법화했다. 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의 지배권이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존재하면서 동양의 이미지에 계속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천일야화』의 경우, 동양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들과 모티브들이 『천일야화』-어린이 판본을 통해 어린 청소년 독자들에게도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린이 판본으로 개작되는 과정에서 동양 이미지가 왜곡되어 전달되었다. 이 경우 작품에 나타난(동양) 인물들의 비현실적인 특성-잔혹함, 난폭함, 악령의 사악함 등-이 책을 읽는 어린 독자들에게 동화적인 맥락에서 (판타지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양적인 사실로 인지되어 실제에 투사되고, 그러한 이미지가 어린 독자들에게 동양 클리셰로 고착되었다. 이후로 서구의 동양 클리셰-욕욕, 음란, 사치스러움, 이국적임, 전제독재, 폭정, 잔혹함과 같은-은 오랫동안 동양 이미지

9) Mustafa Maher: Das Motiv der orientalischen Landschaft in der deutschen Dichtung von Klopstocks "Messias" bis zu Goethes "Diwan", Stuttgart 1962, S. 23.

10) 동양(이슬람) 문화권의 문학과 예술이 유럽 문학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동양의 동화적인 소재와 테마의 수용이 두드러진다. 뿐만 아니라 시문학의 경우 그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양의 시문학을 모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gl. Solbrig: Orient-Rezeption, S. 1452 f.

11) Robert Irwin: Die Welt von Tausendundeiner Nacht, a. d. Engl. übers. v. Wiebke Walter, Frankfurt a. M. u. Leipzig 2004, S. 45 ff.; 독일에 전달된 『천일야화』도 거의 버턴의 번역본에 기인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세기에야 비로소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 제공된다. 독일어권에서는 엔노 리트만 Enno Littmann의 번역이 처음으로 아랍어 텍스트에 기초를 둔 독일어 판본(1921-28)으로 제공되었다.

로 남게 된다.¹²⁾

이에 상응해서 현대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들은 『천일야화』의 형식을 빌려 동양(이슬람) 문화권에 대해 이국적이고 동화적인 이미지들을 전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가 마르 역시 『립펠의 꿈 이야기』를 통해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모험의 세계가 되는 동양을 제공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립펠의 학급에 전학을 온 두 명의 터키 아이 하미데와 아르슬란이 립펠의 꿈속 모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하미데 공주와 앓슬람 왕자로 등장한다. 꿈속에서 펼쳐지는 모험을 통해 립펠은 용기를 얻게 되고, 현실에서 처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씩 극복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립펠은 꿈속의 공주와 왕자뿐만 아니라, 현실의 터키출신 친구들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정을 쌓게 된다. 『립펠의 꿈 이야기』를 통해 작가 마르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독자들로 하여금 - 전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상호문화적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아성찰과 올바른 동양 이미지를 다루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III. 낭만적 동양의 현대적 수용: 꿈과 현실, 동양과 서양

『립펠의 꿈 이야기』¹³⁾는 작가 마르가 어렸을 적 즐겨 읽었던 『천일야화』의 형식을 차용해 고안한 이야기이다.¹⁴⁾ 마르는 동양을 배경으로 모험이 펼

12) 문화적, 인종적 타자로서 동양(인)에 대한 묘사의 시대적 변화 양상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졸고: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문화적인종적 타자’ 문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31-43면 참조.

13) 1985년 ‘오스트리아 아동·청소년 문학 국가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1990년 영화화되어 1991년 처음으로 상영되었다. 그러나 1990년도의 영화에 만족하지 못한 작가 마르와 영화사측에 의해 2009년 다시금 영화화 되어 <립펠의 꿈 Lippels Traum>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http://de.wikipedia.org/wiki/Lippels_Traum(검색일: 2014년 10월 14일)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리펠의 아라비안 나이트』로 번역·소개되었으나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14) 독일에서는 특히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라픽 샤미의 성공 이후, 독자들은 천일야화의 향기가 나는 이국적 분위기와 동양권 출신 타자들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고 대

쳐지는 립펠의 꿈과 립펠의 실제 현실을 교묘하게 교차시켜, 립펠과 마찬가지로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꿈에서의 일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혼란을 겪게 한다. 이것은 현재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인 독일 사회에 대한 메타포로 볼 수 있다. 꿈에서 겪게 되는 동양(인)에 대한 경험을 현실에 투사할 수 있게 되고,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메카니즘으로 작동한다.

립펠¹⁵⁾의 엄마와 아빠는 직업상 회의가 있어 오스트리아 빈에 가게 된다. 1주일 간 집에 홀로 남게 된 -물론 립펠을 돌보아 주기 위해 부모님이 1주일간 고용한 아랍 부인과 함께이긴 하지만- 립펠을 위해 아버지는 『천일야화 이야기 Die Erzählung aus den Tausendundein Nächten』 책을 선물로 두고 간다. 립펠은 평소에도 동양 Morgenland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하고 후 동양에 관한 책들만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를 즐긴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가게 될 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도, 립펠이 책을 통해 동양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그다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어요 [...] 전 바그다드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동양책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슬람 수장 아히메트는 ...”
 >>Lieber über Bagdad [...] Ich weiß eine ganze Menge über Bagdad. Steht alles im Morgenland-Buch. Scheich Achmed ...<< (LT, 20).

뿐만 아니라 립펠은 이슬람의 수장 아히메트가 암살자들에게 끔찍한 복수를 하는 내용인 책 『동방의 아침의 나라 Im Morgenlande』에 자신 나름대로의 삽화를 그린다. 립펠이 직접 그린 그림은 피가 낭자한 반월도를 들고 있는

하게 되었다. Vgl. Gundel Mattenklott: Stabilität im Umbruch. Kinder- und Jugendliteratur der neunziger Jahre, in: Deutschunterricht, Jg. 52, Sonderheft, 1999, S. 1-18, hier: S. 11.

15) 이 작품의 주인공 소년의 원래 이름은 필립 마텐하임 Philipp Mattenheim이다. 그러나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이름을 줄여 립펠이라 부른다. 립펠은 자신의 이름이 필립이라는 사실을 유치원에 들어가서야 알게 된다. Vgl. Paul Maar: Lippels Traum, Hamburg 1984, S. 8 f. (앞으로 이 작품의 본문 인용은 ‘LT, 면수’로 표기함)

터번을 두른 아히메트가 아니다. 립펠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끔찍이 싫어하는 토마토 수프를 아히메트가 암살자에게 먹이는 장면을 그린다.¹⁶⁾ 일반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의 동양과 관련된 이야기들에서는 왕들이 잔악무도한 폭군으로 그려진다. 그 또한 동양권 사람들에 대해 선입견이 가중된 이미지를 갖게 하는 데 일조한 바 없지 않다.¹⁷⁾ 마르는 이러한 관념형성을 염두에라도 둔 듯 잔인한 복수가 될 수도 있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에 걸맞게 희화시켜 동양인의 잔인한 이미지를 희석시킨다. 이처럼 도입부에서부터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주인공 립펠에 동화되어 동양 친화적인 감성을 쫓아가게 된다.

립펠은 『천일야화 이야기』 중 578일째 밤 이야기에 해당하는 <여자의 간계와 술책 Die List und Tücke der Weiber>¹⁸⁾을 먼저 읽는다. 립펠은 자신

- 16) In die Bücher waren große, farbige Bilder eingeklebt und unter jedem stand eine kurze Erklärung. Manchmal fehlte ein Bild. Dann war da nur ein weißes Rechteck zu sehen, unter dem etwas stand: >>Scheich Achmed nimmt fürchtliche Rache an den Assassinen.<< Und Lippel musste sich selbst ausmalen., worin die Rache wohl bestand. Er kam zu dem Entschluß, dass der Scheich die Assassinen gezwungen hatte Tomatensuppe zu essen. Das war die schrecklichste Strafe, die sich Lippel vorstellen konnte. (LT, 12 f.)
- 17) 대부분의 현대 아동문학 작품에 묘사된 동양(인)에 대한 상투 이미지를 살펴보면, 특히 동양권 출신 이민자들의 문화는 뒤쳐진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이다. 반면 이주국의 문화는 세련되고 발전적이며 자유로운 것으로 묘사된다. Vgl. Gina Weinkauff: Multikulturalität als Thema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in: Günter Lange (Hg.): Taschenbuch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Bd. 2, Baltmannsweiler 2000, S. 766-782, hier: S. 773.
- 18) 이 이야기는 - 578일째 밤부터 606일째 밤까지 이어지는 - 중국의 여러 왕 중에서 제왕 중의 제왕이라 불리워진 위세 당당한 왕 이야기이다. 이 왕은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를 뽐냈지만, 연로하도록 후사가 없어 불행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신에게 간청하여 원하던 왕자를 얻는다. 왕은 온 나라를 통틀어 가장 학문과 인격이 뛰어난 현자 신드바드에게 왕자의 교육을 전담시킨다. 신드바드의 집에서 학문을 연마하던 왕자는 스승 신드바드의 별점을 통해 7일 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예언을 받게 된다. 마침 그 때 왕이 아끼던 무희 하나가 왕자의 미모에 반해 욕정을 드러냈다가 왕자로부터 치욕을 당한다. 자신의 안위가 걱정된 무희는 왕에게 달려가 왕자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운다. 대노한 왕은 왕자를 당장 처형하라 명하지만, 현명한 대신들은 왕이 나중에 지금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7명의 대신들은 하루씩 돌아가며 여자의 간계에 빠져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가 후회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차례차례 전하며 왕자의 처형을 하루하루 미룬다. 그렇게 7일이 지나고 8일 째 되던 날, 마침내 왕자

만의 은신처에서 밤 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그만 야콥 부인에게 발각되어 책을 빼앗기고 만다. 스승이자 대 학자인 현자 신드바드의 별점 예언에 의해 10살이 되던 어느 날 큰 불행을 피하기 위해 1주일 동안 한 마디의 말도 하면 안 되는 왕자의 상황까지 읽고 책을 빼앗겼기에, 립펠은 그 다음 이야기가 매우 궁금해진다. 립펠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잠을 자는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꿈으로 꾸는 것이다. 이처럼 립펠은 부모님이 떠난 첫 날부터 돌아오시는 날까지 1주일 동안 꿈을 꾸며 모험을 이어 나간다. 그런데 꿈속에서 립펠과 함께 모험을 하게 되는 공주 하미데와 왕자 앓슬람은 공교롭게도 그날 낮에 립펠의 학급에 새로 전학 온 터키 출신 아이들 하미데와 아르슬란을 연상시킨다.

하미데와 아르슬란이 처음 립펠의 반에 선생님과 함께 들어와 학급 친구들에게 소개될 때에는 이민자 아이들의 문제를 다루는 여느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겁먹은 듯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 들은 앞쪽 클로베 선생님 옆에 서서 당황한 듯 바닥만 보고 있었다 Die beiden blieben vorne neben Frau Klobe stehen und blickten verlegen auf den Boden.”(LT, 32) 하지만 작가가 마르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을 상투적으로 이끌지 않는다. 앞서서도 소개된 바와 같이 평소 동양에 대해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던 립펠의 옆 자리에 앉게 된 이들에게 학급에 적응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데 수반되는 문제들을 부여하지 않는다. 립펠은 하미데와 아르슬란에게 학기 중에 전학 오게 된 이유와 거의 아무 말 하지 않는 아르슬란에 대해 묻는다. 그러자 하미데는 아빠의 일 때문에 이사 오게 되는 바람에 학기 중에 전학을 오게 되었으며, 오빠인 아르슬란은 독일어를 잘 못해서 거의 자신이 오빠 대신 말을 한다고 답한다 (LT, 32 ff.).

아무 말 없기에 무뚝뚝할 것만 같던 아르슬란을 통해 작가가 마르는 독자들의 선입견—동양권 출신 이민자 아이들에 대해 갖고 있을 법한—을 또 한 번

는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경위를 밝힐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닦은 학문을 뽐내어 왕을 기쁘게 한다. 리처드 버턴: 『아라비안 나이트』, 김병철 옮김, 범우사 1993, 267면 - 387면 참조.

깨뜨린다. 이민자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다른 텍스트들에서는 전학 온 이민자 아이가 독일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립펠의 경우처럼 독일인 친구가 먼저 다가오는 경우도 거의 없다. 대부분 이민자 학생들이 특별한 행동이나 용기 내지는 재능을 보여주는 경우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친구가 되거나, 어려움에 처한 독일인 친구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가까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르슬란은 전학 오던 첫 날 쉬는 시간에 립펠에게 터키에서 가져온 사탕을 건네고, 립펠은 스스로없이 맛있게 먹는다. 이 장면에서도 낯선 타문화를 자연스럽게 대하는 립펠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립펠은 사탕껍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처음 얼핏 보기에는 녹색 점이 찍힌 빨간 보통 사탕껍질처럼 보였다. 하지만 글자는 다르게 생겼다. 립펠은 그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것은 터키어였다.

립펠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터키에서 직접 온 사탕껍질은 매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Lippel betrachtete das Bonbonpapier. Es sah auf den ersten Blick ganz normal aus: rot, mit grünen Punkten. Aber die Schrift war anders. Er konnte sie nicht lesen.

Kein Zweifel: Das war Türkisch.

Sorgfältig faltete er das Papier zusammen und steckte es in seine Tasche. So was bekam man nicht jeden Tag: ein Bonbonpapier direkt aus der Türkei. (LT, 36 f.)

하찮을 수 있는 사탕 포장지 하나도 터키의 골동품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여기는 립펠의 모습에서 현실성이 돋보인다. 마르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소소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독자들이 동일화하기 쉽게 독일인 소년 립펠을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워 립펠의 관점을 쫓아가며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만든다. 아동문학의 경우 사회화 기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작가의 표현 스펙트럼이 더욱 중요하다.¹⁹⁾ 마르

19) Vgl. Kodjo Attikpoe: Von der Stereotypisierung zur Wahrnehmung des ‚Anderen‘. Zum

는 터키 출신의 아이들을 등장시키지만, 이들에게 문화전달자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독자들로 하여금 소소한 립펠의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립펠을 통해 동양이 현실 속에 자연스럽게 제시되는 한편,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꿈속에서는 동양이라는 공간이 신비한 모험이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모험의 장소가 된다. 어린 청소년 독자들의 시선이 머나먼 곳의 삶의 세계로 향한다. 낯선 문화와의 조우는 그것에 대한 이해지평을 넓히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허무는 소통의 일차적 동인으로 제시된다. 더욱이 작가 마르는 립펠이 꿈속에서 모험을 하는 동안 배경이 되는 동양을 묘사함에 있어 그 어떤 교훈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화려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 사는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색 바랜 동양의 낭만적인 이미지를 되살리는 데 성공한다.

꿈속에서 립펠이 처음 마주한 광경은 왕의 옥좌가 있는 궁전 내실이다. 그 광경은 여느 작품에서도 마주할 수 있는, 책을 읽을 때 립펠이 상상하던 것과도 같다. 벽에 걸려 있는 값비싼 양탄자, 황금 무늬의 하얀 기둥, 물을 뿜어내고 있는 대리석 분수 등(LT, 61). 또한 왕좌를 노리는 왕의 형수로 인해 누명을 쓰고 추방당하는 립펠과 하미데 공주와 앗슬람 왕자는 도중에 모래폭풍이 불어 닥쳐 근위병들을 따돌리고 다시 시내로 잠입한다. 립펠 일행은 성문 앞 시내에서 밤을 지낼 숙박업소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맨다. 그 속에서 묘사되는 골목 구석구석의 풍경은 독자들로 하여금 천일야화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세 아이들은 숙소를 찾기 위해 개를 데리고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이제 한 낮의 열기가 서서히 사그라들며 저녁의 시원한 바람이 골목길을 스쳐지나가자,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왔다. 대장장이들은 작업장 앞에 놓여 있는 등반이 없는 간이 의자에 앉아 얇은 구리로 커다란 주전자를 만들고 있었고, 샌들을 만드

는 신발장이는 가죽끈으로 신발끈을 꼬고 있었다. 재단사는 줄무늬 카프탄을 꿰매고 있었고, 소목장이는 밖에서 판자를 대패질하고 있었다. 바구니를 짠 사람, 나무 조각공, 양탄자에 매듭을 짓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유리잔 연주자들이 작업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가게 앞에서는 상인들이 소리치며 자기네 물건을 선전하고 있었다.

Und die drei durchstreiften mit ihrem Hund die engen, krummen Gassen auf der Suche nach einer Unterkunft.

Jetzt, da die Hitze des Tages langsam abgeklungen war und der Abend kühle Luft durch die Gassen streichen ließ, kamen die Menschen aus ihren Häusern. Kupferschmiede saßen auf Hockern vor ihrer Werkstatt und formten große Wasserkessel aus Kupferblech, Sandalenmacher flochten Lederbänder zu Schuhriemen, ein Schneider nähte an einem gestreiften Kaftan, Schreiner hobelten draußen ihre Bretter, man sah Korbflechter, Holzschnitzer, Teppichknüpfer und sogar einen Glasbläser bei der Arbeit. Vor den Läden standen die Händler und priesen laut ihre Waren an. (LT, 119)

위의 밤 풍경에 버금가는 아침 풍경 묘사에서도 동양의 벽적거리는 싱그러운 아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 사이 아침이 되었다. 우선 아직 여명일 때 립펠은 여관 지붕위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자 시끄러운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한 떼의 염소를 이끌고 한 목동이 집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염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염소를 모는 목동의 소리가 들렸다. 한 사나이가 나귀를 타고는 골목길을 두루 다녔다. 그는 이곳에서 잘 알려진 사람임에 틀림 없었다. 여기저기에서 그에게 큰 소리로 반갑게 인사를 했고, 그 역시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이웃에서는 누군가가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 어떤 남자가 알리라는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욕을 해대며 화를 내고 있었다. 마침내 립펠은 여관의 똥보 여주인이 노래를 부르며 안마당을 이리저리 다니며 쇠그릇을 부딪히며 내는 소리를 들었다. 여주인은 여관 손님들의 아침을 준비하는 모양이었다.

Inzwischen war es Morgen geworden. Zuerst, noch in der Dämmerung, hatte Lippel die Vögel auf dem Dach der Herberge gehört. Später, als es heller wurde,

kamen immer mehr Geräusch dazu. Ein Hirte zog mit einer Herde Ziegen am Haus vorbei. Zuerst hörte Lippel die Ziegen meckern, dann die Stimme des Hirten, der die Tiere antrieb. Ein Reiter auf einem Esel ritt durch die Gasse. Er musste hier gut bekannt sein. Er wurde von allen Seiten laut und fröhlich begrüßt und grüßte genauso laut zurück. Im Nachbarhaus hämmerte jemand. Eine Männerstimme schimpfte und verfluchte einen gewissen Ali und dessen sämtliche Kinder und Kindeskind. Schließlich hörte Lippel, wie die dicke Wirtin singend im Innenhof herumging und mit Metallgefäßen schepperte. Wahrscheinlich bereitete sie das Frühstück für die Herbergsgäste. (LT, 170)

게르하르트 하스 Gerhard Haas는 낯선 문화에 대한 서구 유럽의 관점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18세기 말, 특히 19세기 이후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인종차별주의가 반영된 표현이 나타나기 전에는 낯선 민족의 순수함이 긍정적으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은 모험 단편 소설을 위한 낭만적이거나 이국적인 무대배경으로 기여했음을 밝히고 있다.²⁰⁾ 위와 같은 묘사를 통해 마르는 이러한 이국적인 동양풍경이 뿜어내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회복시켜 놓는다.

꿈과 현실을 오가는 사이 독자들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과 사물들을 통해 꿈인지 현실인지 당황스러워하는 립펠에게 이입된다.²¹⁾ 이러한 과정을 통해 꿈과 현실의 구분은 더욱 모호해지고 꿈속의 동양은 현실 속의 동양이 된다. 마르는 이 작품의 첫 장을 블레즈 파스칼 Blaise Pascal의 『팡세 Pensées』의 한 구절로 장식한다.

20) Gerhard Haas: Eigene Welt - Fremde Welt - Eine Welt. Die Geschichte eines Bewusstseinswandels in der KJL, in: Bettina Hurrelmann, Karin Richter (Hrsg.): das Fremde in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Interkulturelle Perspektiven. Weinheim, München 1998, S. 209-221, hier: S. 211.

21) 꿈속에서 모래폭풍으로 사막에서 길을 잃은 립펠을 도와주었던 개가 다음 날 학교 가는 길에 나타난다든가 (LT, 93 ff.), 꿈속 하미데 공주가 하고 있던 두건과 팔찌를, 다음 날 하미데가 학교에 하고 와 립펠을 깜짝 놀라게 하는 (LT, 122 ff.) 등 여러 사물과 인물들이 꿈과 현실에 교차 등장한다.

만일 어떤 직공이 매일 밤 12시간 씩 계속해서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꿈을 꾸다면, 그는 매일 밤 12시간씩 직공이 되는 꿈을 꾸는 왕과 같이 행복할 것이다.

Wenn ein Handwerker sicher sein könnte, jede Nacht zwölf Stunden lang zu träumen, er sei König, so wäre er ebenso glücklich wie ein König, der jede Nacht zwölf Stunden lang träumte, er sei ein Handwerker. (LT, 5)

꿈은 현실의 연장선상이고, 현실은 꿈의 재현일 수 있다. 이러한 꿈이 갖는 모호한 특성을 현실과 연결시켜,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타문화나 동양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한다. 그렇게 꿈 속 낭만적 동양이 현실로 들어온다.

IV. 동양 이미지 재구성

일반적으로 타문화권 출신이 등장하는 작품에서 ‘낯선 타자 *der/die Fremde*’라 함은 이민자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립펠의 꿈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인 립펠과 야콥 부인이 ‘낯선 사람 *der/die Fremde*’으로 표현된다. 엄마와 아빠는 빈에 가 있는 동안 혼자 있을 립펠을 돌봐줄 사람을 구한다. 하지만 립펠은 “일주일 동안이나 낯선 사람(야콥 부인: 인용자)과 저만 혼자 뒤서는 안 돼요 *Ihr(Lippels Eltern: v. Verf.) könnt mich doch nicht eine Woche lang bei einem Fremden lassen*”(LT, 21)라고 말하며 거칠게 저항한다. 또한 립펠의 ‘꿈속 모험이 펼쳐지는 곳’²²⁾에서는 립펠이 바로 “낯선 자 *ein Fremder*”(LT, 65 f., 227)로 지칭된다.

반면 립펠의 반에 새로 전학 온 터키 출신의 하미테와 아르슬란은 이 작품에서 ‘낯선 이 *Fremdling*’로 표현되지 않는다. 립펠에게 이들은 그저 “새로운

22) 애초에 바그다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립펠의 말이나(LT, 20), 그곳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인 ‘디나르 *Dinar*’(LT, 123)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꿈속에서 펼쳐지는 모험의 장소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이라크임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친구 *zwei Neue*”(LT, 32)일 뿐이다. 립펠의 같은 반 친구인 엘비라 역시 하미테와 아르슬란에게 그 어떤 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선생님께 그저 “이 아이들은 외국인 *sind das Ausländer?*”(LT, 34)이냐고 만 묻는다.

이러한 장치들은 타문화권 출신의 이주민들—특히 동양권 출신의—이 아닌 이 책을 읽는 독일의 어린 청소년 독자들 자신도 ‘낯선 자 *Fremde*’일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유도한다. 율리아 크리스테바 *Julia Kristeva*는 ‘두려운 낯설음 *Das Unheimliche*’에 대한 프로이트의 논문에 의거한 타자 논의에서 “낯선 것이란 내 안에 존재하며, 또한 우리 모두가 낯선 사람들 *Das Fremde ist in mir, also sind wir alle Fremde*”.²³⁾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크리스테바는 “만일 사람들이 스스로 낯선 타자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관대할 수 있겠냐 *Wie könnte man einen Fremden tolerieren, wenn man sich nicht selbst als Fremden erfährt?*”²⁴⁾며 반문한다. 이런 측면에서 마르의 언어 증립적인 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자기 환경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기 힘들고, 더군다나 타자의 입장이 되어 자기 자신 또한 타자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 작품을 통해 어린 청소년 독자들은 자신이 타자일 수 있음을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고, 이러한 경험은 낯선 타자들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다.²⁵⁾

또한 마르는 그 동안 이민자 문제를 다루는 텍스트들에서 나타났던 동양권 출신의 이민 1세대인 부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부모의 모습을 제시하며 동양권 출신에 대한 상투 이미지를 꼬집는다. 일반적으로 부모세대의 경우 이민

23) Julia Kristeva: *Fremde sind wir uns selbst*, Frankfurt a. M. 1990, S. 209.

24) Ebd., S. 198.

25) 엠퍼 오설리번 *Emer O'Sullivan*은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에 삼입된 고정관념이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엠퍼에 두도록 작가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아동·청소년 문학 작품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고착되어 통용되는 고정관념과 그 어휘들의 정치적 잠재력, 즉 그것의 부정적인 기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Vgl. *Emer O'Sullivan: Das ästhetische Potential nationaler Stereotype in literarischen Texten. Auf der Grundlage einer Untersuchung des Englandbildes in der deutschsprachigen Kinder- und Jugendliteratur nach 1960*, Tübingen 1989, S. 21.

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 편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배타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들로 그려진다.²⁶⁾ 하지만 하미데의 어머니는 오히려 아르슬란보다 독일어를 더 잘한다. 그리고 립펠이 자신을 초대해준 답례로 하미데와 아르슬란을 집에 초대할 때도,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사안인지 립펠에게 묻는다. 이처럼 하미데의 어머니는 독일의 여느 부모님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LT, 189).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 작가는 독일인 등장인물의 선입견과 자문화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잠식하고 있는 선입견과 결부된 동양(인)에 대한 인식을 노출시킨다. 우선 립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동양에 대한 흥미와 관심과는 별개로 어쩔 수 없이 타문화권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고착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립펠은 하미데의 집안 모습이, 자신이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웃에 사는 예쉬케 아주머니의 집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 자못 놀란다.²⁷⁾ 그러면서 타문화권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던 관념이 실제와 다르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스스로 깨닫는 모습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꿈속에서 립펠 일행이 숙박비를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립펠의 자문화 중심적인 관념을 엿볼 수 있다. 립펠과 하미데 공주와 앳슬람 왕자는 숙박비 마련을 위해 밤중에 시장에 나가 악기를 연주하고 돈을 벌려 한다. 그러자 립펠은 밤이라 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에 갈 수 없어. 벌써 어둡단 말야” 립펠이 이의를 제기했다.
 “너 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구나!” 하미데가 웃으며 말했다. “낮 동안 시장은 텅 텅 비어 있어. 왜냐면 너무 덥거든.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일을 하거나 산책을 해. 너 이미 봤잖아. 사람들이 모두 골목에 나와 앉아 있는 걸. 저녁 때는 아무도 집 안에 있지 않아.”

26)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문학에서는 이민자 가정이 묘사될 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인다. 어머니는 언어부적응 상태로 동향인들하고만 어울려 독일 사회로부터 통합의지가 없는 사람들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27) “Lippel schaute sich neugierig um. Eigentlich sah es aus wie in Frau Jeschkes Wohnzimmer auch. Das Einzige, was man gleich als türkisch erkannte, war die Musik. Ein Kassettenrekorder spielte türkische Lieder.”(LT, 187)

[...]”

>>Aber wir können doch nicht jetzt auf dem Markt auftreten. Es ist doch schon dunkel<<, wandte Lippel ein.

>>Man merkt, dass du den Markt nicht kennst!<<, sagte Hamide lachend.

>>Tagsüber ist er fast leer, denn dann ist es viel zu heiß. Aber jetzt, am Abend, sind Hunderte Menschen da, kaufen und verkaufen, arbeiten oder gehen spazieren. Du hast sie doch alle auf den Gassen sitzen sehen. Am Abend bleibt keiner zu Hause. [...].<< (LT, 125)

기후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방식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립펠은 독일식 문화관념으로 동양의 생활문화를 대하기 때문에 하미데의 제안을 선뜻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인 것이다.

야콥 부인을 통해서는 인종차별적인 관념 상태가 폭로된다. 야콥 부인은 기호에도 맞지 않는 음식을 립펠에게 강요한다든가, 립펠이 좋아하는 책을 압수해 못 읽게 하는 등 립펠과 갈등을 일으키며 약간 상식 밖의 면모를 보인다. 립펠이 하미데와 아르슬란을 집에 초대했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 야콥 부인은 순순히 초대를 수락한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터키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야콥 부인은 돌변한다. 자신이 있는 집에 터키인을 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며, 초대를 당장 취소하라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도둑으로 매도한다.

“[...] 어쨌든 내가 이 집을 돌보아야 하는 한 그 외국인들은 이 집에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뭐가 없어지더라도 하면 네 부모님은 분명히 나한테 그 책임을 물을 거야!”

“지금 하미데하고 아르슬란이 도둑질이라도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립펠은 완전히 격분했다. “난 오늘 개네들 집에서 점심을 먹었고, 내일 개네들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단 말예요.”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니? 참 잘 돌아간다!”, 야콥 부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애들은 여기에 못 들어와. 끝!”

>>[...], diese Ausländer kommen hier nicht herein, solange ich aufs Haus aufpassen muss. Hinterher fehlt dann was und deine Eltern geben mir die

Schuld!<<

>>Wollen Sie sagen, dass Hamide und Arslan klauen?<< Lippel war ganz aufgebracht. >>Ich war heute bei ihnen zum Essen und ich möchte, dass sie morgen bei uns essen.<<

>>Willst du mir Befehle erteilen? Das wäre noch schöner!<<, rief Frau Jakob.

>>Wir brauchen uns gar nicht weiter darüber zu unterhalten. Sie kommen hier nicht rein. Schluss!<< (LT, 191)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립펠처럼 야콥 부인의 언행에 부당함을 느낄 것이다. 야콥 부인은 꿈속에서 간계를 꾸며 공주와 왕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왕의 형수와 대칭을 이루는 인물이다. 이는 동양뿐만 아니라 독일사회에도 부당한 사람은 존재하며, 동양인뿐만 아니라 독일인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관념연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더욱이 작가 마르는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경우 독일이라는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인 언어문제를 건드리며 현실적인 문제를 파고든다. 이 경우 독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쪽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해야 하는 입장에 감정을 이입시키게 된다. 립펠의 꿈속에서 왕자 앳슬람은 별점 예언 때문에 1주일간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침묵을 하는 입장이다. 립펠의 반 친구 아르슬란은 학교에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립펠과 셋만 있을 때에 아르슬란은 문법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립펠은 자신의 말을 다 이해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아르슬란의 태도가 의아하다.

“도대체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니?” 립펠은 아르슬란에게 대놓고 물었다. “너 내가 한 말 다 이해하잖아.”

“말 할 수 없다.” 아르슬란은 방어적인 태도로 말했다.

“왜 못하는데? 너 지금 말하고 있잖아!” 립펠이 말했다.

“그래. 하지만 맞지 않아. 다 틀려.”

“그래서? 니가 좀 뭐 틀리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뭐 어쨌는데?”

“모두 웃는다!”

“그렇지 않아. 나는 웃지 않잖아” 립펠은 힘주어 말했다.

>>Warum redest du eugentlich nie?<<, fragte Lippel Arslan ganz direkt. >>Du verstehst doch alles, was ich sage.<<

>>Kann nicht reden!<<, sagte Arslan abwehrend.

>>Wieso nicht? Gerade hast du auch geredet!<<, sagte Lippel.

>>Ja. Aber nicht richtig.. Alles falsch.<<

>>Na und? was ist denn dabei? wenn du mal was falsches sagst?<<

>>Alle lachen!<<

>>Das stimmt nicht. Ich lache nicht<<, beteuerte Lippel. (LT, 153 f.)

아르슬란은 하미데가 독일어를 잘하기 때문에 자신은 말을 하지 않고 항상 ‘그녀를 묻는다 ihr fragen’고 말한다. 그러자 립펠은 ‘그녀에게 sie’라고 수정해 준다. 그러자 아르슬란은 기분 상해 한다. 립펠은 문법관계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결코 독일어 문법이 어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정관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만 독일어가 쉽다고 했던 말을 후회한다. 아르슬란은 집은 성이 das인데, 학교도 집인데 왜 학교는 성이 die냐고 질문하고, 립펠은 대답을 하지 못한다. 립펠이 생각해도 왜 그런지 웃기다. 그리고 아르슬란이 문장활용에서 ‘학교에서 in der Schule’라는 표현에 정관사 die를 사용하자, 이 경우에는 der를 써야 한다고 립펠이 고쳐준다. 그러자 아르슬란은 아까는 학교가 성이 die라고 해 놓고는 지금은 왜 der로 써야 하냐고 성을 낸다. 그러자 립펠은 결코 독일어가 쉽거나 간단하지 않음을 스스로도 깨닫게 된다 (LT, 155). 립펠은 다음날부터 직접 아르슬란에게 독일어를 가르쳐주기로 한다.

이러한 립펠의 깨달음은 자신들은 당연히 쉽다고 여기는 모국어인 독일어가 외국인에게는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 것인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립펠의 감정선을 쫓아가며 깨달을 수 있게 해 준다. 문학적 인물들에 의거해 독자들은 실제 주변에서 독일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 아이들의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기대치가 타문화권 출신들의 문제를 다루는 아동·청소년 문학에 부과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작품을 통해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그러한 타자들을 배척하려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안목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아동·청소년 문학이 독자들에게 문학적 재미에 얽어 줄 수 있는 교육적 성과는 ‘이해지평 *Verstehenshorizont*’의 확장이다.²⁸⁾

동양 클리셰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아동도서에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사회적인 위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습득되고, 또 한 번 선입견으로 흡수되면 더 이상 그 관점을 벗어날 수 없다.²⁹⁾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타문화를 이해하는 관념은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까지 이어져 수정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그렇기에 작가 마르스 립펠을 통해 타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립펠 뿐만 아니라 어린 청소년 독자들은 선험적으로 타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하미데의 집에 초대를 받아 돌아오는 길에 립펠은 친하게 지내는 예쉬케 아주머니 덕에 들러 이것저것 이야기 해 준다. 예쉬케 아주머니는 음식 맛은 어땠는지, 어떤 음식이 맛있었는지 물어본다. 그 때 립펠은 “서로 다르다 *verschieden*”(LT, 189)고 말한다. 그렇다 문화는 서로 다른 것이지 무엇이 더 좋고 나쁜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V. 나가는 말

시리아 출신 작가인 아델 카라스홀리 Adel Karasholi는 ‘선입견의 힘 *die Macht der Vorurteil*’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조건지어진 이미지를

28) 가다머의 해석학 개념에서는 ‘이해’와 ‘지평’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다머에 의하면 “지평은 어느 한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시야 *Horizont ist der Gesichtskreis, der all das umfaßt und umschließt, was von einem Punkte aus sichtbar ist*”이고, ‘이해’는 이러한 “지평들의 융합과정 *der Vorgang der Verschmelzung solcher Horizonte*”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해지평이 다른 이해지평 속으로 융합될 수 있고, 지평들의 융합을 통해 ‘이해지평’이 확장되고 풍요로워진다. Vgl. Hans-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1965, S. 286 ff.

29) Jörg Becker/Rosmarie Rauter (Hrsg.): *Die Dritte Welt im deutschen Kinderbuch 1967-1977*. Wiesbaden 1978.

새롭게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긴 시간을 요하는 지리한 일인지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³⁰⁾ 이만 카릴 Iman Khalil 역시 동양과 서양의 고정관념에 관한 논의에서 동양 이미지를 수정하려 많은 인문학자들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그러한 전문분야의 제약성을 지적하며, 문학이 갖고 있는 “보다 더 광범위한 공공성 einer breiteren Öffentlichkeit”³¹⁾에 비길 수 없음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고착된 이미지에 부여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문학만큼 적합한 매체는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³²⁾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독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동양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대 작가들의 시도를 『립펠의 꿈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다. 문학 텍스트를 통해 독자들은 타문화권 출신 사람들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이끌 수 있고,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다문화 현상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 독자들은 독서 행위를 통해 기조에 갖고 있던 동양 클리셰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게 되고, 스스로 이미지 변화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30) Adel Karasholi: Demokratie nur für Deutsche? oder Die Macht des Vorurteils, in: Dietmar Keller: Nachdenken über Deutschland, Berlin 1991, S. 120-138, hier: S. 130 ff.

31) Iman Khalil: Orient-Okzident-Stereotype im Werk arabischer Autoren, in: Mary Howard (Hg.): Interkulturelle Konfigurationen. Zur deutschsprachigen Erzählliteratur von Autoren nichtdeutscher Herkunft, München 1997, S. 77-93, hier: S. 91.

32) Vgl. Ebd.

■ 참고문헌

1차 문헌

Maar, Paul: Lippels Traum, Hamburg 1984.

버턴, 리처드: 『아라비안 나이트』, 김병철 옮김, 범우사 1993.

2차 문헌

Attikpoe, Kodjo: Von der Stereotypisierung zur Wahrnehmung des ‚Anderen‘.
Zum Bild der Schwarzafrikaner in neueren deutschsprachigen Kinder-
und Jugendbüchern (1980-1999), Frankfurt a. M. 2003.

Bausinger, Hermann: Stereotypie und Wirklichkeit, in: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Bd. 14, 1988.

Becker, Jörg u. a. (Hg.): Die Menschen sind arm, weil sie arm sind, Frankfurt
a. M. 1977.

Bornewasser, Manfred: Fremdfeindlichkeit: Ursachen und Veränderungsmöglichkeiten,
in: Alexander Thomas (Hg.): Psychologie und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 Problemanalyse und Problemlösungen, Göttingen 1993, S. 95-115.

Broyles-González, Y.: Türkische Frau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Macht der Repräsentation. in: Zeitschrift für Türkeistudien, 1,
1990, S. 107-134.

Fritzsche, Klaus Peter: Streßgesellschaften und Xenophobie, in: Yves Bizeul u.
a. (Hg.): Vom Umgang mit dem Fremden. Hintergrund - Definitionen -
Vorschläge, Weinheim u. Basel 1997.

Gadamer, Hans-Georg: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1965.

Haas, Gerhard: Eigene Welt - Fremde Welt - Eine Welt. Die Geschichte eines
Bewusstseinswandels in der KJL, in: Bettina Hurrelmann, Karin
Richter (Hrsg.): das Fremde in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Interkulturelle Perspektiven. Weinheim, München 1998, S. 209-221.

Irwin, Robert: Die Welt von Tausendundeiner Nacht, a. d. Engl. übers. v.

- Wiebke Walter, Frankfurt a. M. u. Leipzig 2004.
- Karasholi, Adel: Demokratie nur für Deutsche? oder Die Macht des Vorurteils, in: Dietmar Keller: Nachdenken über Deutschland, Berlin 1991, S. 120-138.
- Khalil, Iman: Orient-Okzident-Stereotype im Werk arabischer Autoren, in: Mary Howard (Hg.): Interkulturelle Konfigurationen. Zur deutschsprachigen Erzählliteratur von Autoren nichtdeutscher Herkunft, München 1997, S. 77-93.
- Maher, Mustafa: Das Motiv der orientalischen Landschaft in der deutschen Dichtung von Klopstocks "Messias" bis zu Goethes "Diwan", Stuttgart 1962.
- Mattenklott, Gundel: Stabilität im Umbruch. Kinder- und Jugendliteratur der neunziger Jahre, in: Deutschunterricht, Jg. 52, Sonderheft, 1999.
- O'Sullivan, Emer: Das ästhetische Potential nationaler Stereotype in literarischen Texten. Auf der Grundlage einer Untersuchung des Englandbildes in der deutschsprachigen Kinder- und Jugendliteratur nach 1960, Tübingen 1989.
- Rauter, Rosmarie u. a. (Hg.): Die Dritte Welt im deutschen Kinderbuch 1967-1977. Wiesbaden 1978.
- Said, Edward W.: Kultur, Identität und Geschichte, in: Gerhart Schröder u. a. (Hg.): Kulturtheorien der Gegenwart, Frankfurt a. M. 2001, S. 39 - 58.
- Schär, Helene: Dritte Welt als Thema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in: Günter Lange (Hg.): Taschenbuch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Bd. 2, Baltmannsweiler 2000, S. 783-798.
- Solbrig, Ingeborg: Orient-Rezeption, in: Ulfert Ricklefs (Hg.): Das Fischer Lexikon. Literatur Band 3, Frankfurt a. M. 1996.
- Weinkauff, Gina: Multikulturalität als Thema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in: Günter Lange (Hg.): Taschenbuch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Bd. 2, Baltmannsweiler 2000, S. 766-782.

사이드, 에드워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교보문고 1991.

허형근: 옛센스 독한사전, 민중서림 2007, 1603면.

http://de.wikiüpedia.org/wiki/Lippels_Traum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0324900>

Zusammenfassung

Das Orientbild in der deutschen Kinderliteratur

Lippels Traum von Paul Maar

Myoung, Jeong (Kyonggi Uni)

Der Ausdruck ‘Orient’ leitet sich von lateinischen *oriens* mit der Bedeutung ‘aufgehende Sonne, Morgengegend, Osten’ ab und gilt als Oberbegriff für überwiegend islamisch geprägte Kulturen. Mit dem Begriff des Orients, der sich aus der Perspektive Europas entwickelt hat, sind seit Jahrhunderten unterschiedliche, z. T. auch widersprüchliche Bilder, Stereotypen und Vorurteile verbunden. Der islamische Orient wurde zur Zielscheibe der christlich-kirchlichen Polemik. Der als Inbegriff des Exotischen und Erotischen wahrgenommene Orient galt sowohl als märchenhaft als auch bedrohlich.

In der zweiten Hälfte des 20. Jahrhunderts begann die sachliche Auseinandersetzung mit den stereotypischen bzw. vorurteilsbeladenen westlichen Orientbildern und -klischees. Dies geht zum einen auf das Ende der Kolonialzeit und das neu entstandene Selbstbewusstsein der orientalischen Länder zurück. Zum anderen erforderte die immer größer werdende Migrationswelle aus dem Orient nach Europa und die daraus entstandenen Herausforderungen der interkulturellen Kommunikation eine Auseinandersetzung mit den jeweiligen Selbst- und Fremdbildern.

Die Bilder des Orients vollziehen den Spagat zwischen der märchenhaften und exotischen Faszination und der Feindseligkeit, die Angst und Bedrohung erregt. In Deutschland fällt die Feindseligkeit im Bild des Orients mehr in die Augen. Ein harmonisches Nebeneinander der unterschiedlichen Kulturen ist schwer und die Spuren alter Klischees und Vorurteile sind in der

Migrationsgesellschaft deutlich zu erkennen. Aus diesem Grunde versuchen die kinder- und jugendliterarischen AutorInnen, mit Hilfe der Kinder- und Jugendliteratur jungen LeserInnen die ausgeglichene Orientbilder zu vermitteln.

Mit diesem Ansatz wird in der vorliegenden Arbeit das Orientbild in Paul Maars Werk *Lippels Traum*(1984) unter die Lupe genommen. Im untersuchten Text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zuerst der Orientbegriff und das vorgestellte negative Orientbild ins Auge gefasst. Darüber hinaus wird das märchenhafte, romantische Orientbild aus *Lippels Traum* untersucht. Der Ausgangspunkt dieses Werkes von Paul Maar ist eine der Geschichte aus *Tausendundeine Nacht*. Zum Schluß wird die Rekonstruktion des Orientbilds untersucht, um Orientklischees zu verändern.

주제어: 동양 이미지, 천일야화, 파울 마르, 립펠의 꿈, 낮선 타자

Schlüsselbegriffe: Orientbild, Tausendundeine Nacht, Paul Maar,
Lippels Traum, der/die Fremde

필자 E-mail: mjsunho@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4. 10. 20, 논문심사일: 2014. 11. 18, 게재확정일: 2014. 11. 25.